

논쟁과 지혜

(막3:20-35, Contention & Wisdom)

서: 오늘_6·10 만세 운동 96주년

- 1 순종 장례식 1926. 6. 10 기해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3·1운동 있는 전국적 전 민족적 항일운동 전개
- 2 평가) ¹.사전에 치밀하게 준비 되_일제, 삼일운동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철저한
경계태세(경성, 육해군 7000 집결)
².1,000여명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초를 받았지만_1927년 신간회, 근우회, 신정회,
연정회 등 조선인 사회단체 조직되게 되고,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에도 영향
- 3 억압과 난관 속에서도 고난을 각오하고 지혜를 모아 불의에 항거, 저항 정신 계승
- 4 오늘 복음서 본문도 불의한 억압을 헤쳐 나가는 데서 공감대 이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
둘기같이 순진하라.”(마10:18)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살기 어려움

I. 본문: 논쟁의 시작

- 1 세례_부르심 확인, 시험_나갈 길과 방법 명확화 후, 갈릴리, 식민치하 100년. 날로
강성해가는 로마제국 만 영원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나라 도래와 심판 선포
- 2 그 말씀과 행적과 기적_ 신선하고 놀라운 충격, 모이고 따르고, 소문이 소문 날아
- 3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 예수 소문 접하고 심상참음에 초기진화 결정
소문 분석, 귀신 들린 자를 낮게 함이 가장 큰 파장 파악, 집중공세 키로
‘예수, 사탄 두목이 씌어, 그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소문, 울법학자 보내 신뢰.
- 4 무리가 모여든 가운데 예수, 그 울법학자들을 불러 놓고, 정면대결, 비유로 말씀,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하시고 ‘너희가 나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하고 다니는데,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심 (막3:20-27). 그후 열썬도 안 해

II. 계속되는 음해성 공개질의

- 1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과 헤롯당원들을 보내,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칩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마22:17)
옳다고 하면, 매국노.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에 반역자.
동전(데나리온), 얼굴? 씨져. 씨져의 것은 씨져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 2 예수께서 성전에 드시니, 서기관(울법체계 보존)과 바리새인: 간음하는 여자 현장에서
끌고 와,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8:2-11)
돌로 쳐라하면, 잔인한 자. 하지 말라면, 율법을 파괴하는 자.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쓰시니

- 저희가 양심에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사라져 버려
- 3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마21:23-27)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 휘하, 허락한바 없고. 혹시 로마로부터?
 “나도 한 가지 묻자. 너희가 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같이 하는지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기를,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 저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
 요. 만일 사람에게서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답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지 말하지 않겠다.” 하셨다.
- 4 이 논쟁의 현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자리, 살벌한 분위기 조성, 공생애 최대 위기
 지혜로운 답을 하지 못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엄중한 순간들
 예수님은 어떻게 기발한 대답을 즉각적으로 하사 사악한 무리를 순식간에 제압?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악의적 논쟁 극복할 뱀처럼 완벽한 방어적 지혜를 갖추까?

III. 창의성 개발

- 1 근간의 중요한 화두? ‘창의성’,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더욱 각광?
 퇴임 후 우연계 ‘창의성 아카데미’ 고위과정 운영 관여, 7년 이론과 실제 파악
- 2 창의성은 개발 가능 전제, 다양한 훈련 방법 제시되, 공통되는 몇 가지
 'Unusual Usage' : 한 물건의 정상용도 이외의 사용처 말하기, 예) 벽돌/책꽂이..
 'Creative Log' : 창의 일기, 매일 안 해본 일 하고 느낌 적기 예) 빨간타이, 침묵..
- 3 그 외 ‘창의문제풀이’ 주제의 시간, 공간, 분야 축 변동 훈련, 유창성/독창성 함양
- 4 창의성 훈련 통해 유창성과 독창성 극대화로 이런 음해성 논박 극복할 수 있을까?
 무언가 좀 깊이의 차원에서 다를 것 같아?

IV. 지혜의 기반

- 성경말씀에 정통_어린 시절 성전에서의 토론,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 소명감에 충실_황폐한 현실, 세례를 통해 부르심과 소명 확인
- 기도로 소통_주어진 여건 극복위해 끊임없는 소통 필요. 형실-초현실, 유한-무한
- ‘ θ 경외, 지혜의 근본’(잠1:7), 피조적 세계에 창조자의 안목, 객관적 총체적, 지혜

결: 현실과 소명

- 현실_잘못되고 오도된 종교 연계 사건으로 신앙적 정서의 부정과 소외
- 생활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 다수, 묵묵히 신앙인으로 성실성을 유지
-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말씀과 그 뜻을 되새기며 크고 작은 소명 의식하는 것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음미하고 개선의 길 모색
- 크고 작음을 떠나 일상에서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자각하는 마음 마음에 θ 축복기원